

Ⅱ. 교화활성화를 위한 제언

오 회 원(수위단회 상임위원)

한 덕 천(수위단회 전문위원)

1. 교역자의 자질향상과 사기진작	20
(1) 예비교역자 교육의 재점검이 필요하다.	21
(2) 인사관리의 효율성이다.	21
(3) 교화기관 인력보충이다.	21
(4) 4급이상교무의 개척교화진출 확대를 하자.	22
(5) 교역자 재훈련을 실시하자.	22
2. 어린이집(유치원) 운영	23
(1) 교화에 활용하자	23
(2) 재가교도를 활용하자	23
3. 교화방법론 검토	24
(1) 교도(고객) 만족도를 평가하자	24
(2) 교화교재, 프로그램 개발	24
(3) 종합적 교화방법론 개발	25
4. 효과적인 인력활용	25
(1) 단독교무 해결책을 강구하자	25
(2) 재가교도의 교화인력 활용하자	26

최근 언론에 보도된 원불교 교도수를 접하고 충격과 대중사성령께 죄송스러움을 어찌할 수 없다. 10년동안 인구의 증가나 교역자 증가가 - 원기 71년 교역자 수 546명, 원기 80년 교역자 수 1,605명 - 71년에 비해 3배 증가하였으며, 교당은 - 원기 71년 383개, 원기 80년은 440개 - 71년에 비해 57개교당의 증가 그리고 기관은 - 원기 71년은 자료를 구하지 못해 정확히 알수는 없지만 원기 75년 88개에서 원기 80년 122개 - 교당의 증가율보다 높은 증가를 보이는 등 교화력의 바탕은 증가되고 있음에도 교화는 10년전에 비해 7,000여명이 감소된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는 교단이 ‘파란고해의 일체중생을 제도하고자’ 개교한 동기에 부합하지 못하고 교단주의나 물량주의 그리고 인력의 효과적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결과는 아닌지 모르겠다.

이는 “도가의 명맥은 시설이나 재물에 있지 아니하고, 법의 해명을 받아 전하는데에 있나니라”하신 대중사님의 말씀을 경전속에 사장시키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책임이다.

또한 매년 『교화상황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결과는 당연한 것임에도 그동안 안이하게 생각해오다가 언론기관에 발표됨으로써 표면화되고 있는 우리들의 의식이 걱정이다.

수년전부터 원불교교화는 정체내지 침체되고 있었음에도 위기의식을 갖지 않고 현실에 안주만하고 살아온 우리들 모두의 책임이며 참회를 해야할 것이다.

다음에 제안하는 내용들은 이런 참회의 마음으로 몇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교역자의 자질향상과 사기진작

「원불교 출가교역자 의식조사」에 의하면 교역자의 자질에 있어서 50%가 품위와 실력에 있어 자질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고, 사기문제에 있어서도 63% 응답자들이 교역자의 사명감이 약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자질과 사명감은 교화력에 가장 핵심적이고 교화를 좌우하는 절대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은 교

화침체의 직접적 요인이 될뿐만 아니라, 이 요소들이 변하지 않는이상 교화의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타개하는 방법으로

(1) 예비교역자 교육의 재점검이 필요하다.

「교육은 분명 교운이다.」

현재의 교육이 종교적 품성을 도야하고, 파란고해의 일체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할수 있는 자질과 사명감을 부여하고 있는지 재점검해야 한다.

일반 회사의 지속적 성장요인으로 가장 먼저 「인재양성」에 두고 있고, 이미 정산종사께서도 말씀하신바인데 우리 교육은 그동안 양적양성에만 치중하여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명감이나 종교적 열성이 반감되고 있다는 최근의 연구결과는 이미 교육과정에서부터 자질이나 사기진작의 기초가 안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된다.

(2) 인사관리의 효율성이다.

현재의 인사정책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인사의 목적은 개인의 성장과 조직의 성장을 최우선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텐데, 지금의 인사정책은 기회균 등에 메달리는 인상이며, 공정치 못하다는 생각들이 교역자들에 비쳐지고 있음으로 인해 불신이 가중되고, 사기진작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물론 교역자들의 의식구조도 변해한다는 것을 전제도 한다.

(3) 교화기관 인력보충이다.

원기 80년 말 현재 출가교역자 총 1,605명 중 각교구를 중심으로 한 교화기관에 793명, 중앙총부 및 산하기관에 535명, 기타 277명으로 교화를 교정의 최우선 과제로 한다는 것은 구호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한다.

교화기관에 근무하는 교무가 50%도 안된다는 것은 교단의 의식저변에 내재되

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의심치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교단 전반적인 업무를 진단하여 교화기관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인력보충이 되어야한다.

(4) 4급이상교무의 개척교화진출 확대를 하자.

현 사회는 30-40대를 중심으로 역동적으로 사회를 향도하고 있다. 실지 이 연령층이 가장 창의력과 추진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들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교역자들의 분포도는 이 연령층이 가장 많으면서도 가장 무기력에 빠져있어 전반적으로 교단이 보수로 회귀하고 안일에 빠져드는 경향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4급이상 교역자들에게 개척교화의 진출기회를 확대하여 이들에게 개척 정신과 자신의 창의력을 최대한 발현하면서 자기실현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한 확대를 했으면 한다.

(5) 교역자 재훈련을 실시하자.

현재 중앙중도훈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역자훈련은 타종교에서 매우 부러워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이런 훈련을 통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오늘날의 원불교를 성장시켜왔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기존의 기간이나 훈련내용만으로는 교역자의 자질향상이나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훈련은 그대로 존속시키고, 재교육차원에서 재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다.

현재 전무출신제도가 급수로 정착을 시킬려면 상급수에 올라가기 전에 재훈련을 실시하여 계층훈련과 직능훈련을 겸해서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1년 정도 쉰 했으면 한다. 이 훈련이 실시된다면 인사의 정체현상도 극복하는 효과도 있다.

2. 어린이집(유치원) 운영

(1) 교화에 활용하자

어린이 교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동안 교정원에서는 많은 권장을 하면서 많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운영해오고 있다. 그러나 과연 교화에 어느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할 상황이다. 일부에서 나타나는 현상일지도 모르겠으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교당재정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교무가 일반교화는 2차적 업무로 생활을 한다면 이는 본래 목적하고는 위반되고 있는 현상이다.

131개나 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이 교화에 순기능이 되고 있는지, 역기능의 역할을 하고있는지 종합적 진단을 하여, 역기능적인 면을 해결하고 교화활성화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야한다.

(2) 재가교도를 활용하자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국가의 보조를 받아 운영하면서 행정적인 지도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파생되는 교역자들의 갈등이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는 교역자 자신에게나 일반인들에게 종교적 성직자로서 바로 설 수 없게 함으로써 교화에 오히려 역효과를 주고 있다.

또한 원장의 자격제한은 많은 어려움이 내재하고 있으며, 설령 자격문제가 없다하더라도 업무자체가 종일 매달려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화는 소홀하기 쉽다.

그러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재가교도를 활용하여 운영하도록 양성도 하고 활용을 하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교화의 보조기관이 되었으면한다.

3. 교화방법론 검토

(1) 교도(고객) 만족도를 평가하자

현대는 고객만족을 경영의 제일과제로 설정하고 있듯이 우리 교화가 과연 교도나 일반인의 요구에 어느 정도 부응하고 있는지 검토하여 그에 바탕한 교화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원불교 출가 교역자 의식조사」에 의하면 67.3%가 현재의 교화 상태로는 교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충분하다고 믿는 교역자는 겨우 9.3%에 불과하게 나왔는데 이는 교역자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고, 교도들의 입장이거나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답이 나올지 모르겠다. 교단의 모든 행정도 교화기관의 입장에서 접근해야지 교단주의적 입장이거나 행정적 입장에서 집행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그간의 「의식조사」 결과를 충분히 고려한 교화방법론이 개발되어야 한다.

(2) 교화교재, 프로그램 개발

그동안 교화부를 중심으로 많은 교화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그런데 일선에서는 왜 교화교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것은 그 교재가 현장감이 없거나 교화에 도움이 안된다는 것일 것이다.

이미 타종교에서나 사회단체에서 일반화된 것을 모방하거나 종교적 흥미를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제는 고객의 입장에서 그들이 쉽게 접근하며,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쉽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역자 중심의 교재개발이 아닌 재가나 일반인을 활용한 교재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도나 일반인들에게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자는 것이다.

(3) 종합적 교화방법론 개발

원불교는 교화 교육 자선을 통해 파란고해의 일체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고자 한다면 교육, 자선도 결국은 교화를 위한 것임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학교를 설립하고,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자선기관을 설립하는 목적이 그런 기관을 통해 영리를 얻고자 함이 아니라 결국은 교화를 하고자 함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의 흐름은 목적자체가 불분명하게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31개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53개의 자선기관, 14개의 교육기관, 14개의 훈련기관, 10개의 산업기관등 등의 기관과 교화현장이 상호보완적 역할로 교화의 촉진제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각 기관은 그 기관자체의 운영만으로 국집하면서 교화와 연결이 안되고 있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모든 조직이 종합적으로 교화라는 목표를 실현시킬수 있는 종합적인 교화방법론을 개발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하자는 것이다.

4. 효과적인 인력활용

(1) 단독교무 해결책을 강구하자

「교화는 종합예술이다」는 말도 있지만 현재 우리교역자의 업무는 너무 광범위하고 과중하기만 하다. 이런 과중한 업무를 교역자 혼자서 처리하며 교화의 활성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한다. 또한 사회인들은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종교를 가지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처를 교무 혼자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80년 현재 단독교무 교당이 전체 440개 교당 중 거의 50%에 가까운 219교당이 나 된다. 그중에도 공양원도 없이 단독거주하는 교당은 194개나 된다고 할 때, 인

력관리 측면에서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예비교역자의 배출도 자꾸 감소되는 현실에 비추어 현재 가능한 방법은 기관에 근무하는 교무 중 교역자 아니면 안될 부분을 명확히 파악하여 절대적인 필요인원이 아닐 경우에는 교당으로 배치하여 단독교무문제를 해결해나가야한다.

(2) 재가교도의 교화인력 활용하자

원불교의 특징중의 하나로 출가재가의 차별이 없다고 말하며, 교단 초기에는 분명 차별이 없이 교단에 재가들이 주인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현재의 교단구조는 출가중심적이라는 것이다. 제도적인 문호는 개방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출가중심적이라는 것을 부인할수 없다. 그러나 교도들은 갈수록 자의식이 강하게 성장하고 집단에서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와같이 상충되는 요소들은 교도들로 하여금 교당에 무관심하게 하고 있으며, 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하면서 교역자는 업무과중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출가위주의 의식구조를 과감히 탈피하여 재가인력을 최대한 교화에 활용해야한다.

많은 교역자들이 현재 교화의 상황을 침체 국면으로 보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은 젊은 교역자일수록 민감하게 느끼고 있다.

그리고 이런 침체국면으로 보는 교역자들 일수록 이러한 침체국면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주소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이 요구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한다.

원기 79년에 『교화발전계획』이 발표되었고, 3대특위에서도 교화에 대한 종합 진단과 방향제시를 하였으며, 각종 채널을 통해 효과적인 교화방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오늘날과 같은 교화의 침체원인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부디 이번만은 각종 문제점만 나열하여 방법만 제시하고마는 형태가 되지 않고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